

反射鏡

國內 유일의 반딧불 棲息地도 훼손
生物學者는 「반딧불 幼虫이 滅種되었다」고

맑은 茂朱계곡에 흙탕물 · 시멘트물이

편집자주 :

住民들 공청회 없는 工事許可에 반발

쌍방울開發에서 대단위 레포츠타운을 개발하게 됨은 본지 44/45호에서 보도한바 있거니와 쌍방울측이 이제 보기도문 「반딧불」의 서식지에서 약 12km 떨어진 南大川상류계곡일대 217만평에 환경오염방지 대책도 없이 스키장·골프장 등 「茂朱리조트」를 건설하면서 계곡을 마구 파헤쳐 물맑기로 이름나고 산천어가 서식하던 70리茂朱九千洞계곡이 흙탕물로 덮이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본회 덕유산 지부창립 준비위원장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토) 雪川面 三公里주민 약 350명은 아침부터 모이기 시작 정오경에는 「물 좋은 九千洞에 구정물이 웅말이나」고 쓰인 프랙카드를 세우고 공사중단을 외치며 환경영향평가와 필요한 시설없이 공사를 진행토록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한다. 이에 대해 쌍방울측에서는 잔디의 잎이 날때까지 참아달라고 무마했으나 주민들은 주민들과의 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이를 허가한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쌍방울측의 환경오염에 대한 비난이 높다.

反射鏡 편집方式 바뀐

다음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현지기사를 간추려본 것인데 종전 각 지상에 보도된 환경관계 기사제목만 기술하던 方式을 지양하고 내용까지 게재하기로 편집 방향을 바꾸어 보았다.

태고의 비경을 간직한 全北 茂朱계곡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는 바람에 전국에서 맑고 깨끗하기로 이름난 계곡물이 흙탕물로 바뀌어 생태계 파괴와 함께 주민의 식수오염과 농작물 재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茂朱郡 雪川面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반딧불 서식지이나 반딧불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생물학회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개발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어나자 雪川面 주민들도 「고향을 지키자」며 집단으로 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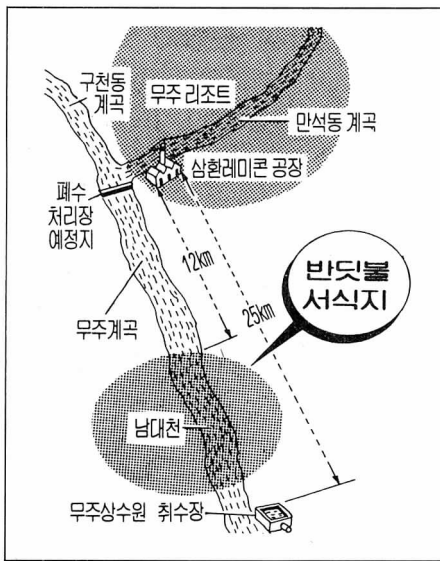
몇해전까지만 해도 여름밤 하늘을 깜빡이며 날아다니는 반딧불을 농어촌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나 농약 생활폐수등으로 농촌에까지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환경오염에 약한 반딧불이 서식지를 잃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정부는 반딧불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는 학계의 진정에 따라 82년 11월4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반딧불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鎭江의 최상류인 南大川 일대 23만9천7백83㎡(茂朱郡 雪川面 淸涼里에서 所川里까지 약 4km)를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 반딧불과 반딧불의 먹이 다슬기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쌍방울개발이 지난해 11월 반딧불 서식지에서 약 12km떨어진 南大川 상류 만석동 계곡 일대

2백17만평에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채 골프장 스키장 호텔 한방요양원 수상공원 등 국내 최대의 종합휴양지라는 「茂朱리조트」를 건설하면서 계곡을 마구 파헤쳐 수정같이 맑은물이 흐르던 70리 茂朱계곡이 흙탕물로 변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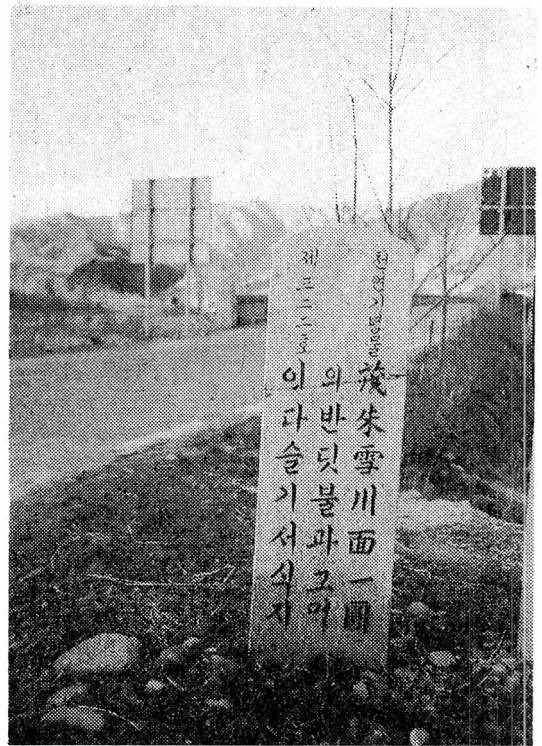
더욱이 지난해 12월 (주)三煥기업이 南大川상류 「茂朱리조트」 입구에 대형레미콘 공장을 건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동함에 따라 흙탕물과 시멘트가루가 뒤범벅이된 암갈색의 오염된 물이 茂朱계곡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계곡물이 심하게 오염됨에 따라 반딧불유충의 먹이인 다슬기 잔새우 등은 물론 물고기까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주민 宋秉孝씨(45·雪川面所川里)는 『南大川일대는 다슬기 물고기 등이 많아 이들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으나 최근에는 완전히 멸종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이 더러워 빨래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딧불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물학회의 보고에 따라 현지 조사를 마친 大田大 南相豪교수(생물학)는 『이미 南大川일대는 반딧불의 먹이사슬이 끊어져 반딧불의 유충이 멸종되었다』고 진단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반딧불 서식지에 아무런 환경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대형개발사업을 허가한 일



은 크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南大川의 물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雪川面에서 가장 먼저 고추씨를 비닐하우스 안에 뿌린 趙宗來씨(37·雪川面伊南里)는 「茂朱리조트」에서 약 16km 떨어진 南大川 물을 짝이 난 고추씨에 뿌렸더니 고추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모두 말라 죽었다고 했다.

南교수는 『三煥레미콘에서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멘트원료로 쓰이는 유해물질인 석회가루와 쌍방울 개발에서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미세한 황토입자가 혼합되어 수중생물을 죽일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죽은물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지하수로 비닐하우스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南大川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以下略) (40페이지로 계속)